해인사 비로자나불 국보지정 다례재

10월 26일 보물서 국보로 승격
국내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 확인
역사적·학술적 가치 재조명 계기
팔만대장경 등 삼보 국보로 봉안

성낙두 경남지사장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비로자나부처님 양위 국보지정서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에게 전달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비로자나부처님 양위 국보지정 축하 다례재를 봉행했다. 11월 19일 해인사 대비로전에서 봉행된 이날 다례재는 해인종림 방장 원각 스님의 헌향, 전계사 무관 스님의 헌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헌화, 국보 지정서 전달, 주지스님 인사말, 문화재청장 축사, 감사패 전달, 대중 헌화, 학사대 최치원상 조형물 참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26일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 대비로전 비로자나부처님 두 성상은 2005년도 4월 개금불사를 위해 옷칠을 하던 중 부처님 성상 내부 벽면 나무판목에 적힌 '중화 3년 계묘년에 여름철에 옻칠하고 개금을 하여 조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한문과 신라시대 이두글자가 발견됐다.

2005년 5월부터 연말까지 문화재 관련 담당자 및 학자, 전문가, 언론, 방송, 전국의 불자들이 친견법회를 하고 사실 확인, 탄소 동이원소 과학실험 등 17년간의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 2022년 10월에 서기 800년대 말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비로자나부처님 양위에 대한 국보지정서를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치원상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있었다. 현응 스님은 최치원상 조성에 참여한 정상용 교수, 임병식 진흥공예 대표, 미추홀설계사무소, 홍기종합건설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현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해인사 대비로전에 모신 두 분의 비로자나부처님 성상이 국보로 지정되어 방장스님과 큰스님, 불자들, 문화재청장, 합천군수, 의장 및 대중스님과 사부대중이 함께 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해인사는 비로자나 두 부처님과 팔만대장경, 희랑조사건칠좌상 등 명실상부한 불법승 삼보가 국보로서 봉안하게 되었다. 축하와 감격한 마음을 해인사 대중과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해인사 비로자나불 국보지정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불교진리를 형상화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 두 부처님의 국보지정은 지난 2012년 이미 보물로 지정된 바 있는 두 부처님의 높은 조각적 완성도와 뛰어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특히 지정조사 과정에서 두 부처님은 802년 해인사가 창건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부처님이자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부처님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명실공히 법보종찰로서 해인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인사에 가득한 국보와 보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현응 스님, 전계사스님, 세민 스님, 산중원로 선용 스님, 혜문 스님, 해인총림 유나 원타 스님, 율주 경성 스님, 박물관장 적광 스님, 진각총무국장스님, 기획국장 학암 스님, 재무국장 응관 스님, 선원열중 성오 스님, 율원장 금강 스님, 학장 보일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윤철 합천군수, 조삼술 의회의장, 해인총림 대중, 해인사신도회, 화엄경완독대법회 동참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문창대로 이동해 최근 조성한 최치원상을 참관했다.

'문창대'는 최치원 선생 작고 후에 받은 시호 문창후文昌侯)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곳에는 신라 말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꽂아놓은 지팡이가 움이 돋아 자란 것으로 알려진 높이 30m 최대 둘레 6m가 넘는 전나무가 있었으나 201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의 피해로 쓰러지자 손자나무를 심어 유전적 계승을 이어 나가는 한편 나무의 잔해를 풍화를 견디어 낼 수 있도록 특수처리된 목재로 재가공하여 최치원상의 좌대 및 주변의 의자로 조성했다. 국내에서는 문화재 지정 해제 후 해제된 문화재로 활용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쌍계사, 인도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동국대 건학위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보시

11월 9일, 3000만 원 기부금 中
1000만 원 印유학생 10명 전달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가 동국대에 재학하고 있는 인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1월 23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쌍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인도 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쌍계사는 지난 11월 9일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3000만 원을 기부했고 이중 2000만 원을 서부 경남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인도 유학생들에게 기부키로 하고, 11월 23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장학사업에 공감해 주시고 지역인재와 더불어 세계 유수의 인재까지 후원해주신 쌍계사에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우리 장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통해 앞으로도 학문에 정진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동국대와 불교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주지 지현 스님은 "인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 쌍계사 역시 다국적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 도량"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도 유학생들이 동국대에서 수학하며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건학위원회 박기련 사무총장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조계종 순례단과 불자들이 43일간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유적지를 순례한다"며 "이번 순례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 양국이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는 "이번 장학금으로 인도 유학생들이 배움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 한국과 인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동국대에서 수학 중인 인도 유학생들도 양국의 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렉둡텐젠(불교학부 3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쌍계사와 영담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렉둡텐젠 학생은 "어린 나이에 불교와 인연이 되어 출가하게 됐고, 불교 교학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동국대에서 수학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도와 한국불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전북대 문화교류 업무협약

한옥기술과 사찰문화 보급확산기대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옥기술과 사찰문화를 배경으로 한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11월 17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한옥기술, 문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한옥 및 건축문화를 소재로 교육과 문화의 상호협력 △한옥의 건축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옥건축기술 및 작품, 문화의 교류 △사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각종 문화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사는 많은 젊은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교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와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선운사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북대학교와 선운사 본말사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9월 24일부터 선운사 대웅보전 5번기둥의 실측모델을 제작해 선운사에서 전시운영하고 있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목조문화재의 건축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사부대중 원탁회의 4차회의 개최

출재가 수행·복지체계 구축 논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문장 도영)가 주최하는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제4차 회의가 11월 19일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열렸다.

'발심에서 열반까지-출재가 수행·복지체계 구축,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의 격려의 말씀에 이어 원탁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토론 제안설명, 모둠토론, 토론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일원 스님은 격려의 말을 통해 "4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통해 출재가 복지제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과 재가자로 나뉘어 진행된 모둠토론은 출재가 수행복지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와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토론에 대한 발표에서는 교육, 주거, 의료 부문에 있어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 기금 조성과 관련한 재정의 투명화, 중진스님들을 위한 지역별 수행관 건립 필요성,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신도들의 신도등록 의무화, 종무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가입, 요양시설의 건립과 수목장 운영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4차 회의를 마친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12월 '전북불교 20년 후'라는 주제로 한 이명호 박사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학 스님, 대원상 상금 동국대에 기부

11월 22일, 2000만 원 전달
수상 상금에 사비까지 보태



제19회 대원상 출가 부문 대상 수상자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사진〉이 불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금 전액과 사비를 더해 장학기금 2000만 원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22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우수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동국대학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사찰이 지역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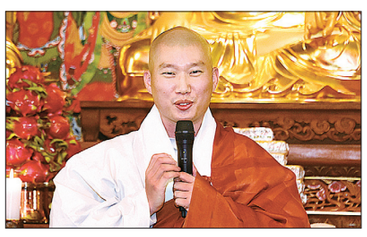
우학 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개최한 제19회 대원상 출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원상 상금 전액에 사비를 더해 이번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학 스님은 이번 기부금을 포함해 불교인재양성 장학, 로터스관건립기금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동국대에 기부한 바 있다.

이날 우학 스님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주지 대륜 스님은 "불교의 중심이 되는 동국대에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어 자랑스러운 마음"이라며 "우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학 스님은 동국대가 중앙일보 순위 9위를 2년 연속 달성하는 등 학교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고 알려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와 대구 출신 동국대 학생들의 인연이 이어지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개원 1주년 법회



화엄사 광주포교당인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은 11월 20일 대웅전에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문도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을 포함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했다.

연성 스님은 지난 1년간의 운영을 통해 수고한 대중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함께 새로 출발하는 전병호 신도회장과 이미진 부회장, 오금택 부회장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광산구에 자비의 쌀 2000kg과 화엄사에서 후원한 장학금 600만 원을 정광중고등학교 학생 13명에게 전달했다. 연성 스님은 "30여 년 전 화엄사 주지이신 종원 스님과 화엄사 대중스님의 원력으로 빛고을포교원이 탄생했다"며, "앞으로 화엄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부처님 도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탑사, 베트남 초교 정수시설 협약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베트남 당락성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에 태양열 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진성 스님과 남상준 (사)전북문화관광연구소장, 박성웅 전북베트남교류우호증진협의회 상임이사는 11월 21일 베트남 닥락성 크롱팍현 애크엣사 떤빈읍에 위치한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를 방문해 태양광 정수시설 설치 협약을 맺고 공사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는 탄티눙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사 48명, 학생 603명으로 2개의 분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200명, 분교에서 오전반 200명 오후반 2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크롱팍현 청소년 복지 담당관, 교육장, 장학사, 닥락성 외무부 담당관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응우앤바응옥 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학교 40주년 기념식을 맞아 기념공연을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의 쌀 전달식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11월 22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신도들이 마련한 자비의 쌀 2000kg을 서구청을 통해 서구지역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최성휴 고문, 김용섭 신도회장, 강민엽 부회장, 김이강 서구청장이 참여했다.

최성휴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해 준비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강 청장도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000kg씩 올해까지 2만 6000kg의 자비의 쌀을 서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지팥죽 나누고 희망도 나누고

안동사암聯, 12월 17일 동지팥죽나눔축제

2023년 계묘년 새해 희망을 나누기 위한 동지팥죽 행사가 열린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12월 17일 오후 12시 안동문화의 거리와 신시장 사거리에서 '2022 동지팥죽 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소속 봉정사, 대원사, 연미사, 광흥사, 유하사, 서악사, 봉서사 등이 참여하여 총 300인 분의 팥죽을 안동시민에게 보시한다. 또한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팥죽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제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실천 활동을 지역에 알릴 계획이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지역민과 동지팥죽을 나눔으로써 새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구례 화엄사 의승병 활약상 조명한다

순천대 남도문화硏·구례문화원, 12월 2일 학술대회

전남 구례 지역 의병과 화엄사 의승병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와 구례문화원(원장 한장원)은 12월 2일 오후 2시 구례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구례의 의병 활동과 성격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욱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장이 '임진왜란기 구례 의병의 활동과 기억 전승', 이종수 순천대 박물관장이 '구례 화엄사 의승병의 구국활동',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말 구례의병의 항일투쟁'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경태 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박민영 원광대 원불교사상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